

**해양경찰청****보 도 자 료**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14.(월) 14:00	배포 일시	2022. 11. 14.(월) 14:00
담당 부서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책임자	과 장 허학선 (032-835-2085)
		담당자	계 장 박성우 (032-835-2586) (010-9384-0935)

해양경찰청,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
-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김종진 경사, 관제 첩저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우수 관제사를 선발하고 사고예방 우수 관제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예선을 거쳐 8명이 본선에 진출, 11월 11일까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와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입상자 4명(최우수1·우수1·장려2)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우수 관제사로는 “민간 협력을 통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 사례를 제출한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김종진 관제사가 선정되었다.

김 관제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엔진이 고장난 예부선이 섬에 근접하는 이상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경비함정 출동 및 주변 민간 선박이 구조 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 선박 좌초 사고를 예방하였다.

김 관제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한편, 바다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24시간 관제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관제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 밖의 우수 관제사례로는 △항로 입구에 집중되는 선박교통 혼잡상황 해소를 통한 충돌사고 예방, △경비함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다에 빠진 도선사를 구조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관제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적극 행정 시행에 더욱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